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10.13.(수)10:00

202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노학

202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1년 10월 1일

나. 회부일자 : 2021년 10월 5일

3. 제안 이유

○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 1,644백만원(도 990, 사군 654)

○ 출연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급증하는 신용보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 코로나19 정부 특례보증 공급 확대 등으로 보증사고 및 손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단의 안정적 보증 운용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출연 내역 : 2022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식

※ 세부내용 ①-③ 출연 사업계획서 참조

○ 기대 효과

- 소상공인 경영악화 등으로 보증 잔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긴급한 보증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보증여력 유지
-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통한 조기 경기회복 지원 및 서민경제 안정화 기여

□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 : 1,000백만원(도비)

○ 출연 목적

- 지역성장의 핵심역량인 기술기반 벤처·창업 여건이 열악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R&D 성과물인 특허의 사업화 전환이 미흡한 상황인 충북에, 충북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

⇒ 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기술혁신플랫폼을 구축

○ 출연 내역 : 충북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출연 1식

※ 세부내용 2-③ 출연 사업계획서 참조

○ 기대 효과

- 지역 내 R&D와 지역산업·기업 연계를 통한 기술사업화 및 '기술확보 → 창업 → 성장 → EXIT(회수) →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 창업생태계의 구축 등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는 기술혁신플랫폼 역할 수행
- 고용창출, 기업규모 확장, 대학 재정 안정화, 투자유치 확대, 기술사업화 모델 정립 등 직접적인 효과와 지역 경쟁력 증대, 대학의 휴먼 특허의 상용화 및 혁신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간접 효과 발생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학)

□ 충북신용보증재단

- '2022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에 대해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동 계획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제10조(행정지원)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 출연규모는 총 16억 44백만원(도990, 시군654)*으로 2021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21년까지 총 591억원(도339, 시군252)이 출연되었음
- * 시군비 총액 1260백만원 중 청주시는 분담금 606백만원 직접 지급

〈기본재산 국·도·시군비 출연금〉

(단위 : 억원)

구 분	계	(점유비)	'16까지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국 비	325	34.6%	286	-	-	-	24	7.5	7.5
도 비	348.8	37.20%	329	-	-	-	-	9.9	9.9
시군비	264.2	28.2%	239	-	-	-	-	12.6	12.6
계	938	100.0%	854	-	-	-	24	30	30

1)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0년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기준이 완화되었고 정부 특례보증금 확대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지원이 이루어 졌으며,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급격한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난 심화 및 폐업 등으로 향후 대위변제(손실) 발생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대위변제 순증 예상〉

(단위 : 억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발 생(A)	228	303	430	415	450	500
회 수(B)	72	61	86	83	100	120
순 증(A-B)	156	242	296	320	350	380

- * 대위변제 : 보증부대출금 연체 등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변제)하는 것
- * 통상 신규보증 지원 후 1년 초과 3년 이내에 대위변제 발생 급증 추세

- 이에 따라 본 출연계획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한 법정 보증한도²⁾ 초과 가능성에 대응하고 재단의 안정적 보증 운용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에 대해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의 법적 근거 및 출연금 세부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출연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무상태 변동 및 향후 예상〉

(단위 : 억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출연금누계(A)	1,730	1,808	1,893	1,983	2,073	2,163
조성액	158	78	85	90	90	90
잉여금누계(B)	△100	△226	△376	△546	△731	△931
증감액	△80	△126	△150	△170	△185	△200
기 본 재 산 (A+B)	1,630	1,582	1,517	1,437	1,342	1,232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보증의 한도) :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 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 이내 운용
 ※ 신용보증 적정 운용 배수 : 잔여자본금 10배 수준

- 다만, 출연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사 시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행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이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 많은 대위변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단 재무상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찰과 보증수요 예측 및 세심한 상환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충북테크노파크

-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2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에 대해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충북테크노파크는 산·학·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제4조에 근거하여 충청 북도가 출연 하고 있음
- 충북은 전국 최고수준의 경제성장률('15~'19 연평균경제성장률 : 5%) 달성 하고 '20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³⁾ 9.9로 전국 6위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지만 '20년 기준 충북 기술기반창업은 5,444개로 전국 10위(전국 2.4%), 충북지역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

3)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 지역이 과학기술분야 혁신을 통해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 할 수 있는 능력 평가지표
 ※ 경기(22.8점)>서울>대전(18.1)>경북(11.1)>울산>충북(9.9)/(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9.1%(14위)이며,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하는 창업투자회사는 21년 기준 1개소로 상대적으로 지역성장 핵심역량인 기술기반의 벤처·창업 여건은 열악한 상황임

〈지역별 창업투자회사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2020. 7월 기준			2021. 8월 기준		
	회사수	운용규모	자본금	회사수	운용규모	자본금
합계	194	289,258	20,792	252	359,459	23,440
서울	160	251,773	17,094	207	312,951	19,253
부산	8	2,396	308	9	3,578	303
대구	1	1,210	3	1	1,571	4
인천	0	0	0	2	53	167
광주	1	371	134	1	371	134
대전	3	809	121	3	1,058	15
울산	2	915	76	2	1,035	76
경기	14	28,800	1,869	19	34,779	2,176
강원	1	375	40	2	375	60
충청	0	0	0	1	150	50
전라	0	0	0	0	0	0
경상	3	2,247	1,147	4	3,178	1,200
제주	1	360	0	1	360	0

- 또한 '10~'20년 충북 특허·기술이전은 5.5% 불과(출원건수 29,871건/기술이전 1,639건)해 대학·연구기관 등 보유 R&D 성과물인 특허 사업화 전환도 미흡한 상황으로 충북의 창업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 발전과 연계성이 높은 기술창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충북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 특허·기술 → 사업화(자회사 설립) 선순환을 위한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플랫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북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 사업을 위한 출연의 적정성이 인정됨
- 다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0억원을 출연하여 총 60억원 (도비 30억원, 대학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타시도의 사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 대학·연구기관에서 투자하는 현물 투자의 가액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당초 계획한대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특히,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술 또는 지식재산을 투자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
- 또한, 신규 회사를 만드는 만큼 지주회사의 안정적인 초기 안착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역량있는 전문 CEO와 직원 선발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출연금을 지원한 후에는 반드시 결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